

5·18 피해자 611명 추가 보상 반년째 '제자리'

국회 통과 보상법 개정안 기재부 반대로 난항 상무대 영창 강제 연행 등 신청 조차도 못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추가 구제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반년 가까이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이 개정, 공포됐지만 후속 시행령 개정이 5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다. 5·18 보상법은 지난 1990년 첫 제정 이후 지금까지 6차례 개정됐으며 보상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

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마지막 보상 신청(2006년 7월1일~12월31일)이 이뤄진 이후,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불법 연행과 구금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 사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상무대 영창, 광주교도소 등에 강제 연행된 시민 2212명 중 611명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법률은 제정·공포됐지만 정작 시행령

안 '기타 지원금의 지급'(21조)에 기재된 '2006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신청기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항목 지원 대상자는 강제연행, 구금 등으로 생업 등에 중상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아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정부부처간 의견 조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걸림돌이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관계자는 "구금, 강제연행 등에 대한 보상부분인 기타 지원금은 시행령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게 돼 있다"며 "일부 부처에서 이견이 있어 대상과 범위를 조율중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반대할 경우 시행령이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 조율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5·18 구속부상자와 관계자는 "법률이 나 시행령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일부 부처가 반대하는 것은 5·18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이 결정된 인원은 사망 155명, 행방 불명 81명, 부상 3378명 등 4634명이며 지급된 보상금은 2452억원이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시립합창단·교향악단도 5·18 기념식 출연 거부 보훈처 요청에 입장 밝혀

광주시는 12일 "국가보훈처가 지난 달 27일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의 기념식 출연을 요청했으나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교향악단은 기념식 날짜와 행사가 겹쳐 출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념식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불허된 상황에서 합창단을 보내는 것은 시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가 시립합창단의 기념식 출연을 거부한 것은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째다. 애초 합창단 측은 기념식 참석에 대비해 애국가, 5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2일 오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의 묘지 앞에서 참배하고 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어린 학생 영정 사진 보니 우리 아이들 생각나요"

국립 5·18민주묘지 찾은 세월호 아버지들 '눈시울'

'교복 입은 어린 학생들의 영정 사진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떠오르네요.'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 6명이 12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찾아 참배하고 묘지 곳곳을 둘러봤다.

단원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7) 씨 등 6명의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들

은 이날 오전 청해진해운 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뒤 오월 희생자들을 낚을 기리기 위해 방문했다.

오월 희생자들이 안장된 묘역을 둘러보던 이들은 지난 1980년 당시 18살이던 고 박성용의 묘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 '우리 아이들 또래 친구들인데...'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묘지를 처음 방문한 일부 아버지들은 묘비 뒷면에 적힌 사연들을 한참 읽어 가다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준영군의 아버지 오홍진(54)씨는 "묘비에 적힌 한명 한명의 사연들이 너무나 애절한데다, 우리 아이들이 떠올라 눈물을 참기 힘들다"며 "이들의 죽음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이끌어 낸 것 처럼 우리 아이들의 희생도 결코 헛되지 않아야 될테

데..."라고 했다.

이들은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 묘지 앞에 모여 단체 묵념을 하기도 했다.

현재 5·18 기념곡 지정과 제창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5·18 피해 당사자, 희생자 유가족들의 심정에 공감을 나타냈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오는 18일 5·18 민주항쟁 35주년 행사위원회가 광주시 동구 옛 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1 | 해질 19:27 | 달뜨기 02:06 | 달지기 14:02

다시 초여름
제주도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4/27	보성	맑음	10/25
목포	맑음	16/24	순천	맑음	13/27
여수	맑음	15/23	영광	맑음	13/27
나주	맑음	11/27	진도	맑음	14/24
완도	맑음	15/25	전주	맑음	15/26
구례	맑음	10/27	군산	맑음	15/23
강진	맑음	13/25	남원	맑음	11/25
해남	맑음	13/25	홍산도	맑음	14/21
장성	맑음	11/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남서~서	1.5~2.5	남서~서	1.5~2.5
남부	면바다	남서~서	2.0~3.0	남서~서	2.0~3.0
남해	안바다	남서~서	1.5~2.5	남서~서	1.0~2.5
서부	면바다(동)	남서~서	2.0~3.0	남서~서	2.0~3.0
	면바다(서)	남서~서	2.0~3.0	남서~서	2.0~3.0

◇생활지수

수면	90
운동	70
빨래	9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9:27 22:06	02:10 15:11
여수	04:40 17:19	11:03 23:16

◇주간 날씨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	☁	☀	☀	☀	☀	☀
17/28	17/26	14/26	12/27	13/26	15/25	13/25

운암고가 인근 승용차 3중 추돌...4명 사상

12일 오전 8시58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M산부인과 앞길에서 운암사거리 방향으로 가던 송모(70)씨의 개인택시가 마주오던 최모(35)씨의 스포티지 승용차와 김모(28)씨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개인택시 운전자 송씨가 숨지고 최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숨진 송씨가 택시를 몰고 내려오던 중 운암고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최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임동119안전센터 제공>



대낮 노인이 운영하는 금은방 턴 30대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12일 대낮 도심에서 노인이 운영하는 금은방만 골라 귀금속을 훔친 정모(38)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김모(여·62)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80만원 상당)를 가지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27차례에 걸쳐 9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2번인 정씨는 도난 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거나 포장을 부탁하며 주인이 눈치를 파는 사이 귀금속을 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CCTV 60대를 조회해 범행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난 북구 신안동의 한 모텔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제41회 Boseong Green Tea Festival

보성다향대축제

2015. 5. 22 ~ 2015. 5. 26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보성차밭일원)

신이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녹차!

주최/주관 보성차생산자조합 / 보성다향대축제 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